

국제유가, 2030년 평균 57달러

EIA, 상당기간 50달러 상회 전망 ... 2010년 수요 9100만배럴

국제유가는 2025년 배럴당 평균 54달러, 2030년에는 57달러에 달하는 등 앞으로 상당기간 50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.

미국 에너지정보청(EIA)은 12월12일 장기 에너지전망 보고서를 통해 원유가격이 장기간 50달러를 넘고 높은 원유가격 때문에 고연비 자동차 판매가 늘고, 대체에너지원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.

또 전반적인 세계 석유 수요증가에 따라 2010년 석유수출국기구(OPEC)의 산유량이 현재보다 23% 늘어난 하루 3690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.

아울러 2010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9100만배럴로 8.7%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.

EIA는 고유가에 따라 2014년 이후 미국에서 여러 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가 핵 발전량이 9% 가량 증가하고, 석탄을 이용한 전력 생산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.

이밖에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등 새로운 에너지원 수요가 늘고, 2025년에는 미국의 하이브리드카 판매량도 15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.

EIA의 전망은 2025년 원유가격이 배럴당 31달러에 그칠 것이라던 2004년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.

<화학저널 2005/12/14>